

대한민국 우주산업 중심지 도약...인프라 구축 잔걸음

2022 광주·전남 핵심 성장동력 <3>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뉴스페이스 시대 고흥나로우주센터 클러스터 조성 도,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관계 부처와 긴밀 협의

전남도가 민간 주도 우주개발 시대를 맞아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민간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아 기술혁신으로 발사체와 위성의 생산비용 장벽이 낮아지고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해져 우주개발이 기업의 새 비즈니스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 3대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최근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등장으로, 세계 민간 우주시장 규모가 2017년 3,480억 달러(392조 원)에서 2040년 1조 1,000억 달러(1,239조 원)로 3.2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우주산업을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정책을 수립중이다.

특히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민간기업 재정·세제혜택 지원, 정부 우주개발 시설 민간 개방, 우주창업 촉진 및 인력 양성 등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도는 뉴 스페이스시대를 선도할 거점으로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집적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민간 우주기업이 발사체 개발을 원활히 수행할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클러스터 주요 사업으로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 ▲우주개발 핵심인프라 및 시설 구축(4,200억원) ▲발사체 시험·인증센터 구축 및 인증지원(650억원) ▲우주기업 특화 산업단지 조

성(1,000억원) ▲우주기업 지원센터 구축(500억원) ▲우주과학 교육테마파크 조성(1,220억원) ▲과학로켓 교육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620억원) 등으로 7개 분야 16개 과제에 2035년까지 8,19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지난달 열린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 용역 최종보고회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분야에서 2021년부터 2048년까지 49기의 중형발사체와 40기의 소형발사체를 발사할 것으로 전망, 연평균 3.18회 발사체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민간 수요까지 감안하면 연평균 10회 이상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남도는 판단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에 2024년까지 496억원을 투입해 민간 고체추진 발

사장을 설치하고 있다.

현재 민간 발사체 제작기업은 발사체의 장거리 이송 시 고비용, 오차·고장 등을 우려,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으로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우주발사체 1회 이송 시 소요 비용은 10~15억원 수준인 데다가 인허가 6개월, 교량 보강공사 5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 보유된 고흥이 글로벌 우주발사체 산업을 육성할 최적의 장소라는 게 전남도의 주장이다.

전남도는 기업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우주발사체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달중에 착수한다.

기획 용역과 타당성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도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주요 인프라 사업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산업의 기술개발과 시험·평가, 인증, 발사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관련 앵커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힘써 대한민국 우주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즐거는 선별진료소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광주시가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 지역 노인 요양시설과 유아동 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린 13일 오후 광주시청 임시선별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 /김태규 기자

이용섭 “안전성 확보 안 되면 철거 후 재시공”

시, 추진사업서 현상 배제 검토

광주시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건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철거 후 재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현장 브리핑에서 “공사 중단 행정 명령이 내려진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5곳 현장에서 확실한 안전성 확보 없이 공사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붕괴 사고 현장은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일정 기간 현대산



이 시장은 이날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현장 브리핑에서 “공사 중단 행정 명령이 내려진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5곳 현장에서 확실한 안전성 확보 없이 공사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붕괴 사고 현장은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리 감독 부실도 따진다.

붕괴 현장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된 2019년 5월 이후 서구에는 소송, 미산 먼지 등 민원 386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7건에 과태료 부과 등

업개발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 시장은 전했다.

광주시는 자치구별로 지정한 감리단으로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고 공공감리단 제도를 도입해 일정 규모 사업장 안전을 점검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작은 민원과 행정 조치를 징후로 볼 수 있었는데도 소홀한 대응으로 대형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시장은 “광주시 감사위원회에서 감독관청의 관리 감독 부실 여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해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하겠다”며 “실종자 가족과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실종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광주시, 일상회복지원금 17일부터 신청·접수

광주시가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을 17일부터 신청·접수받는다

대상은 2021년 12월 1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체류지 등록 또는 거주 신고를 한 외국인이며, 신생아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신청기한 내 출생증명을 하면 지급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방식의 온라인 신청과 선불형 상생카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등 2개로 나눠 진행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방식 온라인 신청은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15개 은행·카드사 중 본인 명의로 평소 자주 이용하는 카드사를 선택하면, 카드사 영업일 기준 1~2일 내로 포인트가 충전된다. 동일 세대 내의 미성년 자녀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선불형 상생카드 행정복지센터 현장방문 신청은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신청기간 내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준일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상생카드를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세대원 중 한 명이 동일세대 내 세대원을 대표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오선우 기자

전남매일이 귀하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전남매일 제4기 CEO경제아카데미

「전남매일 제4기 CEO경제아카데미」는 비즈니스클럽으로 회원 여러분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강좌로 당신을 자신감과 리더십 그리고 열정을 갖춘 최고지도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원자격

기업 최고 경영자 및 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정부기관 단체장,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접수기간

2021. 11 ~ 2022. 02. 18(금)

강의장소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2층 아젤리아홀

강의시간

월요일 19:00~ 20:00 (※18:00 호텔식 식사후 강의)

교육기간

2022년 3월 ~ 2022년 12월 (1년 16강 과정)

수강료

350만원 (부가세포함)

접수처

전남매일 사업국
Tel. 062) 720-1011
Fax. 062) 720-1020
E-mail. jnmi1000@hanmail.net

